

이낙연 “이재민 편에서 섬진강 수해 규명·지원”

구례5일장·양정마을 등 호우 피해 현장 비공식 방문 “복구지원·피해보상 최선 다하겠다” 제도개선 약속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구례 집중호우 수해현장을 찾아 “이재민 편에서 섬진강댐 무단 방류에 의한 인재 의혹을 규명할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구례읍 일대를 방문, 정부의 댐 관리 실패에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해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는 데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맡겨달라. 전국 수해 이재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가감 없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5일시장 상인들은 간담회쪽 안팎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라’, ‘40여일이 넘도록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 ‘어떻게 책임

하겠느냐’, ‘정부 못 믿겠다. 정치권이 나서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를 가면 뭐든 지 정치가 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선을 그었다.

이어 “얼렁뚱땅 조사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 입김이 반영된 조사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이재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답했다.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표는 “우선 현행 제도를 통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제도를 뛰어 넘어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지원책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는 피해 규모가 아닌 복구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면서 “재해 예산 규모, 특히 사유 재산 피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보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서 “주민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허투루 대응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에 신속한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놔도 이재민이 수용하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절망·분노를 생생하게 들었고, 구상 중인 해법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양정마을 주민 간담회에 앞서 수해 당시 참혹한 피해사건이 담긴 대형 현수막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꾸리진 이후 이 대표가 수해 복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개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구례를 찾았으며, 이날 전북 남원과 경남 하동 등 다른 섬진강유역 수해지역도 비공식 방문했다.

한편, 구례군 구례읍 일대는 지난달 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오후 구례군 구례읍 수해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400mm 안팎의 폭우 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수해로 인해 2억의 재산피해가 났다. 구례=김진석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현장 점검

내일부터 복지시설·기업체·전통시장 등 방문 코로나19 어려움 소외층·기업·상인 애로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이 추석을 맞아 지역 주요 민생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기업체·전통시장 등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명절맞이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는 22일 광산구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편한집’을 찾아 입소가족 및 시설 종사자와 만난다. 자녀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미혼모자 가정을 위로·격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양육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23일에는 북구 첨단2지구에 소재한 IT

중소벤처기업 ‘쥬티디엘’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 시장은 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살펴 보며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쥬티디엘은 광주시 지정 지역스타·명품강소기업으로, 최근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남구 무등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구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를 위문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적극 동참한 무등시장 임대인들에게 감사도 전할 계획이다.

김중효 행정부시장도 시민들이 명절맞

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명절 대비 주요 현장을 점검한다. 24일 덕남정수사업소를 찾아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해 현장을 실시하고, 29일에는 영락공원과 망월묘지공원을 방문해 성묘객 편의 증진 및 코로나19 대응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과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로 나눠 50개 과제를 추진해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묘·의료, 교통, 환경·청소, 시민안전, 소방, 급수 등 6개년 10개 분야로 구성된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이권개입·갑질’ 광산구의원 윤리위 회부

공무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갑질’ 문제가 드러난 기초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20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재호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A의원 징계 요구안을 이를 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광산구의회는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심사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

침이다.

A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 역본부가 시행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명으로 갑질 행위를 지적받았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하도록 은근한 압박을 행사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커피숍 인근에 경쟁 점포가 들

어서자 인허가 자료를 요구하고, 점심과 저녁 수발을 요구하면서 식비는 내지 않았으며,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고성을 지른 행동도 논란이다.

의회 직원들 출장과 출퇴근, 연차휴가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법원 동행, 병원 진료 시 운전원을 포함한 관용차량 제공 등 사적인 일에 공무원 도움을 요구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A의원은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윤영봉 기자

정기브리핑



양향자 “재난 발생땐 국유농지 임대료 면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국유토지 임대료 면제를 확인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광주 서창마을 침수피해 현장 사진을 띄우며 국유재산(농지) 임대 주민들의 대부료 면제를 요청했다.

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현황’에 따르면 국유재산(일반재산) 임대 건수 및 대부료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15억원이던 대부료는 올해 7월 현재 1,236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부 건수 역시 17만6,000여건에서 20만여건으로 대

폭 늘었다. 미납액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3억원이던 대부료 미납액은 매년 늘다 올해 7월 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국유재산 임대주민들이 늘면서 코로나19와 폭우 등으로 인해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자 면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작용 농지 등은 재난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어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폭우 피해 등으로 국유농지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6개월의 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빈 “과기부, 부당집행 R&D사업비 월세 낭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월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20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1~2020년) 수행한 국가 R&D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환수결정인 금액은 3,243억원이었다. 이 중 1,876억원을 환수하는데 그쳐 1,367억원(43%)에 해당하는 국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환수금 미납 건은 186건이며, 환

수해야 할 금액은 512억원이다. 그러나 환수액은 31.1%에 해당하는 159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 71%였던 환수율이 2016년 69%, 2017년 54%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 33%, 2019년 36%로 떨어졌던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 환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가 R&D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정부 불신이 커지고 성실한 기업가와 연구자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정부출연금 환수를 통해 재정손실을 막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인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에너지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www.dasco.kr

본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로길 26-2 TEL. 061370-2144	당진1공장(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지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13440-7800	당진2공장(단열재)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함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남지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별책 2로

다스코 가족회사

엘도우(케트윌)

다스코 | 솔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엘도우(케트윌)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선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